

한국 여자탁구, 16년 만의 메달까지 '1승' 남았다

신유빈·이은혜·전지희
12년만에 준결승 진출
오늘 오후 10시 4강전

한국 탁구 대표팀이 12년 만에 올림픽 여자 단체전 4강행을 확정지었다.

신유빈·이은혜(이상 대한항공), 전지희(미래에셋증권)로 구성된 대표팀은 지난 6일(이하 한국 시간)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여자 단체전 8강에서 세트 스코어 3-0으로 스웨덴을 꺾었다.

스웨덴과의 경기 1복식에서는 '환상의 짝꿍' 신유빈-전지희 조가 출격해 필리파 베르간드-크리스티나 칼베리 조를 상대로 3-0(11-2 11-7 11-5)로 압승했다.

두 번째 주자로 나선 이은혜가 린다 베리스트림을 상대로 3-1(2-11 11-4 12-10 13-11) 승을 얻어냈다.

수비 전형의 플레이와 이질러버를 사용하는 린다 베리스트림에 첫 판을 내어준 이은혜는 3, 4게임 듀스 접전으로 진땀 송부 끝에 2세트도 가져왔다.

중국 허베이성 출신의 이은혜는 2011년 귀화 후 이번 파리 대회를 통해 첫 올림픽에 도전했다.

그는 2단식 승리 확정 후 무릎을 꿇고 손 모아 기도하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기쁨을 표출했다.

3단식 전지희 역시 칼베리에 1게임을 내주고 2게임에서 듀스 상황이 이어졌지만 3, 4게임을 연달아 물리치며 3-1(8-11 13-11 11-6 11-6) 승리를 얻어냈다.

한국은 3매치 안에 경기를 마치면서 신유빈의 체력을 아낄 수 있었다.

신유빈은 앞서 임종훈(한국거레소)과 혼합 복식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동메달을 합작했고, 여자 단식 4강에도 진출하는 등 많은 경기를 소화했다.

한국 여자 대표팀은 3-0 완승으로 8강전을 마무리하면서 2012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준결승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여자 단체전 8강전 한국과 스웨덴의 경기. 한국 신유빈-전지희가 스웨덴 선수들을 상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진출했다. 2012 런던 대회 당시 석하정-김경아-당에서(이상 대한항공)로 팀을 꾸렸던 한국은 중국과의 준결승에서 완패했다. 이후 한국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싱가포르에 0-3으로 지면서 메달 획득의 꿈이 좌절됐다.

한국은 8일 오후 10시 결승 진출을 노린다. 이번 준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두면 한국은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에 메달을 목에 걸게 된다. 한국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일본을 3-0으로 완파하고 동메달을 차지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귀국 안세영 “싸우려는 의도 아니다”

배드민턴협회장 오전에 따로 귀국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뒤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안세영(삼성생명)이 귀국길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안세영은 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일단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난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마음을 호소하기 위해, 그렇게 이해해 달라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난 이제 막 도착했다”며 “아직 배드민턴협회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없고 소속 팀과도 상의한 것이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의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진 질문에 관해서도 같은 입장을 냈다.

이날 오전 귀국한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이 “협회와 선수 간 갈등은 없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 또한 더 상의하고 말씀드리겠다”며 “이제 막 도착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 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코리아하우스 기자회견 불참과 관련해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이 었달입장을 나타낸 것에 관해선 “이 부분에서 정말 논란이 많더라”라며 “그래서 이 부분도 말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 팀과 이야기하지 못했다. 최대한 이야기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세영은 질문을 더는 받지 않았고, 팀 관계자의 경호를 받으며 공항 밖으로 나가 소속팀 삼성생명 버스에 탑승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몰려 아수라장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귀국한 김택규 회장은 “나와 선수, 협회와 선수는 갈등이 없었다”고 말했고, 코리아하우스 기자회견에 관해선 “참석을 막은 적 없다. 나도 (안세영이) 안 나온 게 좀 의아스러웠다”고 말했다.

당초 안세영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기다리라고만 했다”며 자의로 불참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연합뉴스

어차피 김우진·임시현? ...한국 MVP 누가 될까

펜싱 오상욱·배드민턴 안세영 등 물망 11일 발표

대한체육회가 2024 파리 올림픽 폐회일인 11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마련한 코리아하우스에서 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선수단 최우수 선수(MVP)를 발표한다.

체육회는 파리에서 올림픽을 취재한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MVP를 뽑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해에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하고 성과를 보였고 국제종합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체육회 자체 MVP를 남녀 1명씩 선정했다.

투표에서 나란히 아시안게임 3관왕에 오른 수영 경영의 김우진(강원도청)과 양궁의 임시현(한국체대)이 MVP의 영예와 함께 상금 3000만원씩 받았다.

성과를 보면 5개 세부 종목에 최초로 씩씩이한 양궁 선수들이 MVP의 강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김우진(청주시청)은 남자 개인전, 단체전, 혼성전을 휩쓸었다.

임시현도 여자 개인전, 단체전, 혼성전에서 금메달 3개를 수집해 국제종합대회 2회 연속 3관왕이라

는 독보적인 신화를 썼다.

임시현과 김우진은 2020 도쿄 올림픽 초대 양궁 3관왕 안산(광주은행)에 이어 우리나라 역대 단일 올림픽 2, 3호 3관왕이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특히 김우진은 통산 5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어 김수녕(양궁), 진종오(사격), 전이경(소프트랙) 이상 금메달 4개를 넘어 한국인 통산 올림픽 최다 금메달 신기록을 세웠다.

펜싱 사브르 개인전에서 한국 남자 선수로는 최초로 금메달을 수확하고 단체전 우승에도 앞장서 2관왕에 오른 오상욱(대전광역시청)도 남자 MVP 후보로 손색없다.

공기소총 여자 10m에서 우승해 역대 하계올림픽 100번째 금메달 수확 선수라는 역사에 길이 남을 타이틀을 2개나 가져간 고교생 명사수 반효진(16·대구체고)도 여자 MVP 깜짝 후보다.

방수현(이레 28년 만에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을 제패한 안세영(삼성생명)도 MVP 수상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쿠바 '레슬링 전설' 매트 위에 꿈을 남기다



6일(현지시간) 쿠바의 미자인 로페즈 누네즈가 파리 상 드 마르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4년 파리 올림픽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130kg급 결승전에서 칠레의 야스마니 아코스타 페르난데스를 꺾은 뒤 은퇴한다는 신화로 신발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

로페스, 올림픽 5연패 성공 뒤 매트에 신발 벗어놔...“젊은이에게 영감 줄 것”

쿠바의 살아있는 레슬링 전설 미하인 로페스(41)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 단일종목 5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로페스는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상드마르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130kg급 결승에서 칠레의 야스마니 아코스타(36)를 6-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로페스는 2008 베이징, 2012 런던(이상 남자 그레코로만형 120kg급), 2016 리우데자네이루, 2020 도쿄(이상 남자 그레코로만형 130kg급)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 우승으로 역대 최초 올림픽 5연패에 성공했다.

이전까지 올림픽 역대 단일 종목 최다 연패 기

록은 4연패였다.

로페스를 비롯해 육상 멀리 뛰기 칼 루이스(미국), 수영 남자 개인혼영 200m 마이클 펠프스(미국), 수영 여자 자유형 800m 케이티 라테키(미국), 육상 원반던지기 엘 오테르(미국), 요트 파울 엘스트림(덴마크), 레슬링 여자 자유형 63kg급 이초 가오리(일본)가 탈선했다.

로페스는 도쿄 올림픽 이후 은퇴를 선언했다가 파리 올림픽에서 역사를 쓰겠다고 하며 현역 복귀했고, 불혹을 훌쩍 넘긴 나이에 꿈을 이뤘다.

이날 경기를 마친 로페스는 매트에 입맞춘 뒤 레슬링화를 매트에 벗어두고 내려왔다.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영웅의 마지막 올림픽 우승을 축하했다.

로페스는 경기 후 올림픽 홈페이지와 인터뷰에서 신발을 벗는 것에 관해 은퇴를 염두에 둔 듯 “조금 슬펐다”라며 “마치 인생의 일부가 그곳에 두고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난 어린 나이부터 이 스포츠를 했고, 레슬링은 날 전 세계에 알렸다”라며 “난 매트 위에 꿈을 남기고 내려왔으며, 그 꿈은 모든 젊은이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페스는 1982년 8월 20일생으로 보름 뒤면 만 42세가 된다.

그는 올림픽에서 치른 23경기 중 2004년 아테네 올림픽 8강전을 제외하면 모든 경기에서 승리했다. /연합뉴스